

HEADLINE NEWS

대중교통 대(對)승객 서비스 향상 대책 마련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Metro'는 서비스 신뢰도 및 승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현재 마련중이다. 'Metro'는 우선 지하철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선별 1인 1일 책임자」 제도를 마련하여 1일 책임자가 당일 해당노선의 민원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말도록 하고, 철도 운행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Metro'는 승객의 서비스 불만사항 개선을 위해 주요부서 책임자와 승객이 직접 대화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Metro'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불만 접수 및 해결 진행상황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Metro'는 서비스 중단과 같은 상황 발생시 대(對)승객 안내방송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Metro'는 요금과 관련한 승객의 불만사항 해결을 위해 신속한 환불조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요금카드의 판매처 확충 등을 통해 승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Metro'는 단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 예산범위 내에서 즉각 그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www.wmata.com/about/met_news/story.cfm?ID=89)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심 발전계획 수립 (샌디에이고)
- ② 저소득층 주거지역 재활성화 위해 도시공원 건설 (카이로)
- ③ 저소득층을 위한 '녹색 커뮤니티' 조성 계획 (시애틀)

도시환경

- ④ 신차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강화 (시애틀)
- ⑤ 전기-디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도입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도시교통

- ⑥ 도로안전도 향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카운티)
- ⑦ 교통혼잡 완화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의 통행 규제 추진 (상하이)
- ⑧ 주거단지 내 도로의 교통량 감소를 위해 통과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 추진 (플로리다주: 윈더미어시)
- ⑨ 광역도로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시애틀)

사회복지·문화

- ⑩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교통정보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 ⑪ 도시확산이 만성병 발병의 원인으로 나타나 (샌타모니카)

행재정

- ⑫ 공공의 계획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금 (미국)
- 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對)시민 안내방송을 위한 방송시설 확보 (뉴욕)

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심 발전계획 수립 (샌디에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대안으로 「다운타운 커뮤니티 계획(San Diego Downtown Community Plan)」을 최근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25년 안에 도심의 거주인구는 현재 27,500명의 3배가 넘는 89,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미 도심인구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현재 고밀 아파트와 콘도 건설이 도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도심에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한 고밀 주거 단지 개발, 활력 있는 24시간 도심 건설, 그리고 각종 환경보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계획을 통해 교외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을 도심으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환경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멸종위기 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0,000에이커의 토지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www.philly.com/mlid/philly/news/10249927.htm?1c)

② 저소득층 주거지역 재활성화 위해 도시공원 건설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시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 'Al-Azhar Park'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도시공원은 지난 500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되어 왔던 74에이커의 부지 위에 건설될 예정으로, 총 공사비 300~45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도시공원이 완공되면 연간 150만명이 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공원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약 240,000명의 인근 주민이 공원개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낙후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소규모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쇠퇴한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green28nov28.story)

(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4034849.stm)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저소득층을 위한 ‘녹색 커뮤니티’ 조성 계획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미국에서 최초로 저소득층을 위한 ‘녹색 커뮤니티 (Green Communities)’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들이 ‘녹색 커뮤니티’의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관합동개발인 이 프로젝트에는 총 5년간 5억5천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6층아파트 50개동과 상업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녹색 커뮤니티’는 건물과 주택단지 설계시 주민의 건강 증진,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일자리와 기타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걷기와 육체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단지 설계 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녹색 커뮤니티’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www.enterprisefoundation.org/majorinitiatives/green/dennypark.asp)

④ 신차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강화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는 신차에 대해 보다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추진 중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제가 실시될 경우, 앞으로 주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배기가스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인 ‘Puget Sound’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이르면 배출가스가 24%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주의회,州政府, 환경단체,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장비 설치 및 기술개발로 인한 가격인상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을 우려하는 자동차업계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seattletimes.nwsourc.com/html/localnews/2002106808_greenhousecars2m.html)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전기-디젤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도입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미국 델라웨어주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DART First State'는 최근 전기-디젤 하이브리드 버스 2대를 뉴캐슬 카운티의 일부 노선에 도입했다. 교통당국은 연료 효율이 기존 버스에 비해 최고 60%까지 높은 이 버스의 도입을 통해 연료비 절감 및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버스의 외관에 주의 주요 관광지 모습을 담은 우편엽서 모양의 장식을 하여 관광지 홍보 및 버스승객 유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버스는 최신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대당 차량 가격이 518,185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www.dartfirststate.com/articles/hybrid/)

6] 도로안전도 향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카운티)

미국 캘리포니아주 17번 도로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도로안전도 향상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본 것으로 최근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7번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인 1998년보다 금년에 교통사고가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Safe on 17」 이란 이름으로 착수된 6천2백만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당시 이 도로구간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아래 지난 6년간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조치는 교통안전표지판의 확충, 도로 재포장, 도로주변 시야 방해물 제거, 도로 진출입 규제 및 정비, 가드레일 설치, 지속적인 과속운전 단속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며, 트럭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운행자제 캠페인에 참여했다.

(www.mercurynews.com/mlid/mercurynews/news/transportation/10212359.htm?template=contentModules/printstory.jsp)

7] 교통혼잡 완화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의 통행 규제 추진 (상하이)

중국 상하이市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의 통행을 규제하는 계획을 최근 추진중이다.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승객은 핫라인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택시정류장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市는 택시 45,000대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2007년까지 구축하고, 택시정류장 360여개를 市의 주요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市는 택시에 GPS를 설치해 보다 나은 통신체계를 갖추고, 향후 5년 이내에 1만개 이상의 택시 호출기기를 시내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市는 현재 도로상의 택시 45% 이상이 공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 및 연료소모, 공해물질 배출 등 손실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이 커지고, 요금 인상 등의 단점이 예상되어, 적절한 시행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english.people.com.cn/200411/25/eng20041125_165185.html)

8] 주거단지 내 도로의 교통량 감소를 위해 통과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 추진 (플로리다주: 윈더미어市)

미국 플로리다주 윈더미어(Windermere)市의 한 주택단지는 주거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과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추진중이다. 지역 커뮤니티가 추진하는 이러한 조치는, 혼잡한 도로구간을 피하기 위해 이 주거단지를 관통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라 오전 및 오후 첨두시 주거단지 통과차량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도로 입구에 'Local Traffic Only'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市는 현재 교통경찰의 협조로 이미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당분간 홍보 차원에서 벌금 없이 경고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로의 이용 제한은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www.orlandosentinel.com/news/local/orange/orl-locwindermere12111204nov12,1,5934038.story?coll=orl-home-promo)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9] 광역도로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도로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한 실험적인 연구가 조만간 수행될 계획이다. 'Puget Sound Regional Council'이 추진하는 「Traffic Choice」라는 이 연구는 2005년 말까지 일반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광역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운전자의 행태 변화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식은 도로구간, 도로 이용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특정 도로구간에서만 아니라 GPS를 이용해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실제 통행패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담긴 계좌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혼잡통행료를 이 계좌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잔액은 참가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는 이를 통해 광역적인 도로 혼잡통행료 시행을 위한 기술적 측면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attletimes.nwsourc.com/html/localnews/2002102955_tollproject28m.html)

10]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교통정보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오리건주: 포틀랜드市)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市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TriMet'는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 경전철의 노선 및 정류장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최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TriMet' 웹사이트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GPS가 있는 PDA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7,700개의 버스정류장과 64개의 경전철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찾기 안내시스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도로상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구축되어 있다.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은 미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시각장애인 4천여명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oregonlive.com/news/argus/index.ssf?/base/news/110087182362690.xml)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도시확산이 만성병 발병의 원인으로 나타나 (샌타모니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최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확산이 만성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와 동시에 걷기와 같은 육체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 고혈압, 관절염, 두통, 호흡 곤란 등 만성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와 '로버트 우드존슨재단'의 후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Public Health' 저널 2004년 10월호에 "Suburban Sprawl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www.rand.org/news/press.04/09.27.html)

④ 공공의 계획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미국)

미국의 'IBM'과 비영리 단체인 'Neighborhood America'는 공공의 계획참여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최근 출시했다. "IBM-Neighborhood America Public Comment Service(www.publiccomment.com)"라는 이름의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 수행시 온라인, 전화, 팩스 또는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공공의 의견을 쉽게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도심 재개발과 같은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에서부터 교통·환경·지역계획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유도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www.publiccomment.com/docs/Press%20Release%20IBM-NA%2010-12-04.pdf)

④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對)시민 안내방송을 위한 방송시설 확보 (뉴욕)

미국 뉴욕市는 시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정전사태 및 테러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방안은 市의 4대 주요 라디오 방송국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통신장비의 시장(市長)관용차량 내 설치, 市의 6개 지점에 TV 방송 송신이 가능한 장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직접 대(對)시민 안내방송을 할 계획이다. 市는 이러한 장비 구입을 위해 1백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했다.

(www.nynewsday.com/news/local/newyork/politics/wire/ny-bc-ny--bloomberg-emergen0923sep23,0,6156826.story?coll=ny-nycpolitics-wire)